대학원에 있어서의 외국어시험 시행에 대한 타당성 조사*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공동연구계획
연구책임자 박 남 식
연 구 위 원 김성곤·신정현
연구보조원 이 종 우

I. 머 리 말

우리나라가 소위 신흥공업국가(NICS)의 대열에 끼어 그 가운데서도 선두주자가 되어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의 지상과제는 우리의 현재 국가발전 템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선진국의 대열로 도약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도약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의 질적 향상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한 나라의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견인차의 역할은 역시 그 나라의 고등교육기관들이 담당한다. 서울대학교처럼 한 나라와 민족의 교육의 선봉에 선 대학교가 여기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크다는 사실은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는 일이다.

연구 및 교육의 기능을 다각적으로 개선하려는 서울대학교의 줄기찬 노력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대학교가 대학원 및 연구중심의 대학을 지향하는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학원을 육성하지 않고서는 고등교육이나 초·중등교육을 육성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대학원의 육성이 한 나라의 교육 전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대학원 수준의 교육과 연구를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는 여러가지 사항이 요구되는 바,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가 우수한 대학원생의 확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학생이 교수/교직원과 더불어 대학원 교육/연구의 주체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훌륭한 대학원생의 확보를 위하여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좋은 대학원생을 가려내는 선발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선발제도는 보통 시험의 형식을 취하는데, 선발대상자가 대학원 수준의 기초실력

* 본 연구는 1989년도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재단 학술연구비로 이루어졌음.

을 갖추고 있는가를 평가/측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평가/측정과정의 일부로 부과되는 외국어시험에 그 초점을 맞추고 서울대학교에 가장 알맞은 대학원 외국어시험이 어떠한 것인가를 밝혀 보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에서의 대학원 외국어시험의 타당성과 그 시행방법에 관한 조사연구로서, 설문지와 공청회를 통하여 대학원교육을 담당하는 많은 교수들의 여론을 수집하고 분석한다.

이러한 성격을 띤 본 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제Ⅱ장은 총론으로 외국어시험에 대한 일반론의 입장에서 대학원 외국어시험을 조명한다. 제Ⅲ장과 제Ⅳ장에서는 설문지와 공청회를 통해 수집된 여론을 분석하고 정리하며 Ⅴ장에서는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일정한 결론을 내린다. 끝으로 부록에서는 설문지와 공청회의 내용을 제시한다.

본 연구보고서의 집필은 다음과 같이 분담하였다. 머리말과 제Ⅱ장은 박남식, 제Ⅲ장은 김성곤, 제Ⅳ장과 결론은 신정현이 각각 맡았다. 그리고 전체 내용의 편집과 원고정리는 이종우가 맡았다.

Ⅱ. 일반적 고려사항

언어능력의 측정시험을 포함한 모든 시험의 평가에 최소한 네 가지의 기준이 통상적으로 사용된다. 즉 타당성(validity), 신빙성(reliability), 현실성(practicality), 하향적 영향(washback effect) 등이 바로 그것이다.

시험의 타당성은 그 시험이 측정하려고 하거나 측정하여야 하는 바를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자동차운전면허시험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피시험자의 운전실력과 도로법규실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자동차운전면허시험만이 그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대학원 외국어시험의 경우도 석·박사수준의 학술활동에 필요한 외국어능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만 그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시험의 신빙성은 평가결과의 일관성과 관계된다. 어떤 시험의 평가결과가 평가자나 평가시기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나오면 그 시험의 신빙성이 높다고 하는 것이다. 즉 동일한 답안지를 A라는 평가자가 채점하건 B라는 평가자가 채점하건 관계없이 동일한 점수가 나온다면 그 시험의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동일한 답안지를 오늘 채점하건 내일 채점하건 관계없이 동일한 점수가 나오면 그 시험의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시험의 현실성은 그 시험의 출제, 제작, 준비, 시행, 결과처리 등을 얼마나 용이하고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척도로 하여 판단된다. 여기서 말

하는 경제성은 인력, 시간, 시설, 비용 등의 경제성을 두루 포함한다. 물론 현실성의 기준에서 볼 때 가장 바람직한 시험은 출제, 제작, 시행, 결과처리 등에서 가장 경제적인 것이라 할 것이다.

시험의 하향적 영향이라 함은 시험이 시험을 준비하는 피시험자들의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지칭한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입학시험이 고등학교교육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흔히들 말하는데, 이를 바꾸어 말하면 대학입학시험이 고등학교교육에 절대적인 하향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험의 하향적인 영향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 흔히 우리나라의 대학입학시험이 부정적인 하향적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는데, 이는 대학입학시험 때문에 고등학교교육이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이다. 그리하여 고등학교교육의 방향을 바로 잡으려면 대학입학시험을 긍정적인 하향적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네 가지 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그것과는 별도의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다른 두가지 기준이 있다. 그 하나는 난이도(level of difficulty)이고, 다른 하나는 변별도(discrimination)이다. 어느 시험에서나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대학원 외국어시험처럼 정기적으로 반복되며 일정한 능력의 수준을 cutoff point로 삼아야 하는 시험에서는 시행시기에 관계없이 항시 일정한 난이도와 변별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것은 물론 피시험자들을 언제든지 동일한 척도로 평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여러가지 평가기준을 척도로 하여 현행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국어시험을 비판해 보자. 첫째로 타당성의 기준에서 볼 때 현행 외국어시험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학술정보의 국제간 교환이 활발해진 오늘날 국제수준의 학술연구를 위해서는 외국어를 읽고 들어서 이해하는 피동적인 능력은 물론 외국어의 글과 말을 통하여 우리의 의사를 상대방에 전달하는 능력도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자로서 정상적인 역할을 하려면 외국어의 네 가지 기능 모두에 능숙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대학원 외국어시험은 읽기(reading comprehension)의 기능 하나만을 중점적으로 측정하고 있다. 그 결과 현행 외국어시험은 타당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로 신빙성의 기준으로 보아도 현행 외국어시험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주관식 문제, 특히 해석과 작문 문제의 채점에 주관이 너무 많이 개입되어 채점의 객관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야말로 현행 외국어시험이 안고 있는 신빙성상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주관식문제는 평가자에 따라서, 그리고 평가시기에 따라서 평가의 결과가 달라질 위

험이 크다는 뜻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scorer training, team scoring 등의 기법을 도입하여야 하지만 현실적인 여러가지 문제점 때문에 이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세째로 현실성의 관점에서도 현행 외국어시험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관식 문제는 출제는 쉬우나 채점이 번거롭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반면 현행 외국어시험에 사용되는 객관식 문제는 채점이 간편하고 경제적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출제가 힘든 객관식 문제를 일회용으로 사용하고 말기 때문에 출제에 소요되는 막대한 노력이 낭비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다.

네째로 시험의 하향적 영향의 측면에서도 현행 외국어시험은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현대의 활발한 국제간의 학술정보교류에는 네 가지 기능을 모두 구사하는 의사교환능력이 요구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로 독해기능 하나만 측정하고 그것도 다분히 분석적인 면만을 강조하고 있다. 그 결과 현행 외국어시험을 치를 사람들은 문제의 외국어를 통한 진정한 의사소통능력의 함양보다는 그 언어의 text에 대한 분석적 이해에 노력을 집중하게 된다. 그리하여 현행 외국어시험은 비생산적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의 하향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겠다.

끝으로 난이도와 변별도의 관점에서 보아 현행 외국어시험은 많은 비판을 받아야 한다. 시행할 때마다 난이도가 달라지고, 변별도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우수한 피시험자와 그렇지 못한 피시험자를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현행 외국어시험의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현행 외국어시험이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은 이미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의 연구(김한곤 외 1982, 김한곤 외 1983)에서 자세히 논의된 바 있다. 그리고 이들 연구에서 이 문제점들에 대한 여러가지 해결책도 제시된 바 있다. 본 연구도 이러한 연구의 연속으로 앞으로 더 좋은 외국어시험 개발을 위한 준비연구인 것이다.

머리말에서 이미 지적하였듯이 본 연구는 대학원 외국어시험에 대한 타당성과 그 시행세부에 대한 조사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설문지조사와 공청회가 공히 타당성과 시행세부를 취급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점은 설문지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라고 하면 공청회는 비교적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라고 할 수 있다.

타당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크게 1부와 2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1부는 외국어가 분야별로 학문연구에 얼마나 필요한가를 묻는 질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부는 외국어시험이 석·박사 학위의 이수요건으로 얼마나 중요시되는가를 묻는 질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

다. 1부와 2부에 공히 외국어의 어떤 능력이 특히 중요한가를 묻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설문지의 타당성에 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의 패턴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예상할 수 있다. 하나는 응답이 모두 부정적인 것으로 이 경우는 외국어시험이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응답이 긍정적인 경우인 바, 이 경우는 외국어능력의 어떤 부분을 특히 강조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응답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

어떤 형식으로든지 외국어시험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나올 경우 그 시행세부에 관한 응답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즉 외국어시험의 내용, 형식, 실시회수, 실시시기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의 패턴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는 뜻이다.

여기서 설문지 내용 가운데 한가지 사항에 특히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설문지 1부의 질문 4~10은 speaking과 writing의 두 능동적인 언어기능의 필요성에 대해서 묻고 있는 바, 이들은 다음 세대의 외국어시험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질문은 오늘날처럼 활발한 국제간 학술교류의 시대를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이들 능동적인 언어기능이 절대로 필요하리라는 연구자들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설문지조사에서 외국어의 speaking과 writing 능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나오게 되면, 현행 외국어시험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회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현행 외국어시험에서는 논문작성능력이나 구두발표능력 등은 전혀 평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청회에서는 영어, 독일어, 불란서어, 중국어(한문) 등 4개 외국어의 전공교수들의 주제발표를 듣고 여기에 대하여 기타 전공분야를 대표하는 여러 교수들의 토론을 청취하였다. 주제발표자들은 각자가 대표하는 외국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시험시행의 세부사항에도 언급하였다. 반면 토론참가자들은 주로 시험시행의 세부사항에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고, computer language시험을 외국어시험 대신 치를 수 있도록 하자는 등 현행 외국어시험의 구조적 변화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공청회 참석자 모두가 외국어(시험)의 필요성은 인정하였지만 그 세부시행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

공청회의 주제발표에 4개 외국어만이 포함된 것은 하나의 결함이라면 결함이라 할 수도 있다. 오늘날 여러 전문분야의 학술매체로서 러시아어, 일본어 등이 포함되었더라면 더 효과적인 공청회가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computer language 등 인공언어에 관한 주제발표도 생각해 봄직했을 것이다.

외국어가 학술연구에 얼마나 필요한가를 측정하는 데는 설문지나 공청회 이외의 방법도 여러가지 있을 수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해당 외국어의

functional load를 조사하는 방법이다. 한 언어의 functional load는 분야별로 그 언어를 통한 정보전달의 양이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서 정해진다. 예를 들어 오늘날 거의 모든 분야에서 functional load가 가장 큰 언어는 영어이다. 분야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세계적으로 중요한 논문 및 저술의 90% 이상이 영어로 발표된다고 한다. 따라서 이렇게 많은 논문/저술이 전하는 정보에 접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꼭 알아야 하는 것이다.

번역의 source language로 많이 쓰이는 언어일수록 일반적으로 functional load가 높다고 한다. 1977년에 세계적으로 50,047권의 책이 번역되었는데, 그 가운데 영어로부터 번역된 것이 19,577권으로 가장 많았고, 러시아어로부터 번역된 것이 6,771권으로 두번째였으며, 불란서어로부터 번역된 것이 6,054권으로 세번째였다(Quirk et al.:6). 이를 근거로 하여 우리는 1977년 당시 영어, 러시아어, 불란서어가 functional load의 서열 1,2,3번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1977년에 정보전달의 양이 가장 많았던 언어가 영어, 러시아어, 불란서어의 순서였다고 할 수 있다.

유학생의 수도 문제의 외국어가 얼마나 중요한 언어인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1979년 당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학생이 영어권인 미국, 영국, 카나다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 숫자는 375,365에 달했다(Quirk et al.:7). 같은 해에 다음으로 많은 유학생이 불어권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 숫자는 112,042에 달했다(Quirk et al.:7). 이 통계숫자에 따르면 1979년 당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언어는 영어와 불란서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신빙도가 아주 높지는 않으나, 한 언어의 사용자 수도 그 언어의 중요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오늘날 영어는 모국어로서 3억 이상이, 관용 언어로서 3억 이상이, 외국어로서 6억 이상이 사용하고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를 갖고 있다. 다음으로 많은 사용자를 가진 언어로 중국어(Mandarin Chinese), 러시아어, 스페인어, 힌디어, 아랍어, 불란서어 등을 들 수 있다.

사용자 수 못지 않게 중요한 것으로 사용자의 지리적인 분포를 이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불란서어, 스페인어, 아랍어 등은 중국어나 러시아어보다 사용자 수는 열세일지 모르지만 지리적으로 더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세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와의 교류, 특히 학술교류의 양에 의하여 외국어의 중요성을 측정할 수도 있다. 학술교류의 양은 여러가지로 측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공부하는 우리나라 유학생의 숫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것을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영어가 단

연 가장 중요한 외국어이고, 불란서어, 독일어, 일본어 등이 그 다음으로 중요한 외국어권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읽히는 외국어 서적의 수량을 생각할 수도 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영어와 일본어가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불란서어와 독일어가 3위권을 형성할 것이다.

끝으로 전통문화의 유대관계를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기준에 의하면 한문(중국어)이 단연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일본어가 될 것이다.

설문지나 공청회를 통하지 않고 지금까지 논의한 기준만 가지고도 외국어(시험)의 중요성을 상당히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Ⅲ장과 Ⅳ장에서 논의할 내용과 관계없이 우리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즉 석·박사 수준의 학술활동에 필요한 외국어로 영어, 일본어, 불란서어, 독일어, 러시아어 등을 선두집단에 넣고, 중국어, 한문, 스페인어, 아랍어, 힌디어 등을 그 다음 집단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Ⅲ. 외국어 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Part Ⅰ에 대한 분석

현행 대학원 입학시험 및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제도에 의해 치러지고 있는 대학원 외국어고사 제도를 장기적 안목에서 검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수들의 의견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외국어시험의 타당성과 외국어 과목의 적합성을 점검하고, 만일 문제가 있다면 외국어 고사제도의 새로운 개선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외국어과목 시험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교수들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설문에 답한 교수의 표집은 각 대학과 각 학과를 단위로 고루 분포할 수 있도록 임의적인 유층표집(stratified sampling) 방법을 취하였으며, 응답한 전체 교수의 수는 444명이었는데 이를 자격시험 계열별로 빈도분포를 작성한 것이 표 1이다.

표 1. 각 계열별 응답교수의 수

계 열	응 답 자 수
인문·사회계열	119
자연·이공계열	182
의·치·약계열	93
예·체능계열	50
전 체	444(33.6%)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자의 수는 인문·사회, 자연·이공, 의·치·약, 예·체능의 4계열에 비교적 균일하게 표집되었으며 전체 교수의 33.6%가 설문에 응해 주었다. 설문지의 각 문항은 부록에 첨가되어 있다.

설문은 part Ⅰ, part Ⅱ 부문으로 나뉘어 있는데 part Ⅰ에서는 주로 현행 외국어시험의 타당성과 현재 채택되고 있는 외국어 과목의 적합성을 점검하기 위한 일반적이고 기초적인 문항들을 다루었고, part Ⅱ에서는 외국어 고사제도의 새로운 개선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외국어과목 시험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으로 외국어 시험의 실시방법과 시험내용 전반에 관한 문항 등을 다루었다.

결과처리는 표 1에 나타난 계열별 반응분포를 고려하지 않고 응답한 모든 교수의 의견을 함께 묶었다.

문항 2,3은 응답자의 외국어 능력에 관한 것이다. 응답한 전체 교수의 87.8%에 해당하는 교수들이 외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다고 답했으며 (표 2) 해당 외국어들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다(해당 외국어에 전부 표시하도록 하였음. 이하 문항 5,7,9 같음).

표 2. 선생님께서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외국어가 있습니까?

	빈 도	백 분 율
예	390	87.8
아 니 오	54	12.2

표 3. 만약 있다면, 어떤 외국어(들)입니까?

(1) 영 어	354
(2) 독 일 어	45
(3) 불 어	18
(4) 기 타	90(※ 일본어 83)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어가 가장 높았으며(90.7%) 그 다음이 기타 언어였는데(23%)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어가 83명으로 가장 많았다.

문항 4,5는 작년 한 해 동안 외국어로 쓰여진 전문적인 글들을 몇 편이나 읽었으며, 해당 외국어는 어떤 것이었나 하는 물음이다.

응답한 교수들의 78%가 작년 한 해 동안 10편 이상의 외국어로 쓰여진 전문적인 글을 읽었으며 나머지 22%는 적어도 1~10편에 해당하는 글을 읽었다고 답했다(표 4). 해당 외국어들은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응답한 교수들의 90%에 해당하는 수가 자신이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외국어로서 영어를 꼽았듯이, 표 2와 표 3에 나타난 수치는 이에 거의 일치

표 4. 작년 한 해 동안 외국어로 쓰여진 전문적인 글들을 몇 편이나 읽으셨읍니까?

	빈 도	백 분 율
(1) 없다	1	0.02
(2) 1~5편	59	13.2
(3) 6~10편	42	9.5
(4) 10편 이상	348	78.3

표 5. 만약 읽으셨다면, 어떤 외국어들로 읽으셨읍니까?

(1) 영 어	426
(2) 독 일 어	43
(3) 불 어	21
(4) 기 타	101(※ 일본어 96)

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타의 경우에 있어서도 일본어가 96명으로 단연 높았다(기타 中 95%).

문항 6,7은 작년 한 해 동안 외국어를 사용한 전문적인 글들을 몇 편이나 썼으며, 해당 외국어는 어떤 것들이었나 하는 질문이다.

응답한 교수의 77%가 적어도 1편 이상의 외국어로 된 전문적인 글들을 썼으며 6~10편 이상도 10%나 되었다. 반면 1편도 쓰지 않았다고 답한 교수는 23%였다(표 6). 해당 외국어는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6. 작년 한 해 동안 외국어를 사용하여 전문적인 글들을 몇 편 정도 쓰셨읍니까?

	빈 도	백 분 율
(1) 없다	103	23.1
(2) 1~5편	310	69.8
(3) 6~10편	23	5.1
(4) 10편 이상	18	4

표 7. 만약 쓰셨다면 어떤 외국어로 쓰셨읍니까?

(1) 영 어	319
(2) 독 일 어	29
(3) 불 어	—
(4) 기 타	18(※ 일본어 14)

표 3,5와 비교하여 볼 때, 읽기와 마찬가지로 쓰기에 있어서도 단연 영어의 사용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특기할만한 것은 표 5에 비해 기타 언어의

빈도가 현저하게 줄었다는 점이다. 일본어로 썼다고 응답한 수가 14명(4%)에 불과한 것은 교수들이 쓰는 전문적인 글들의 발표범위에 비추어 볼 때, 영어가 가장 보편적인 외국어임을 입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문항 8, 9 역시 외국어 쓰기에 관한 문항으로서, 작년 한 해 동안 외국의 동료들에게 외국어로써 몇 통의 전문적인 편지를 썼으며 해당 외국어는 어떤 것들이었나 하는 질문이다.

응답한 교수의 90%가 적어도 1통 이상의 전문적인 편지를 썼다고 답했으며 10통 이상도 28%나 되었다. 따라서 1통도 쓰지 않았다고 답한 교수는 10%에 불과했다(표 8). 해당 외국어는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8. 작년 한 해 동안 외국의 동료 선생님들에게 외국어로써 몇 통의 전문적인 편지를 쓰셨읍니까?

	빈 도	백 분 율
(1) 없다	45	10.1
(2) 1~5통	177	39.8
(3) 6~10통	101	22.7
(4) 10통 이상	127	27.6

표 9. 만약 전문적인 편지를 쓰셨다면, 어떤 외국어로 쓰셨읍니까?

(1) 영 어	380
(2) 독 일 어	35
(3) 불 어	7
(4) 기 타	54(※ 일본어 50)

문항 10은 작년 한 해 동안 외국어로 진행하는 강연에 몇 번이나 참석했는가를 묻는 질문이다.

이에 응답한 교수의 91%가 적어도 1회 이상 참석했었노라고 답했고, 참석한 적이 없다고 답한 교수는 9%에 불과했다. 20%에 해당하는 교수가 6~10회 이상 참석했었다고 답하여, 문항 4~9의 결과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외국어가 학문의 연구 및 정보교환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건임을

표 10. 작년 한 해 동안 외국어로 진행하는 강연에 몇 번이나 참석하셨읍니까?

	빈 도	백 분 률
(1) 없다	40	9
(2) 1~5회	316	71.2
(3) 6~10회	59	13.2
(4) 10회 이상	39	8.7

입증하고 있다(표 10).

문항 11은 외국어가 유창하지 못한 것이 학교 일선 업무나 연구에 장애를 준다고 생각하는가를 묻는 문항이다.

응답자의 52%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46%가 아니라고 답하여 엇비슷한 수치를 보였는데, 계열별로 볼 때 자연·이공계열과 예·체능계열은 그렇다고 대답한 수보다 아니다라고 대답한 수가 더 많았다(표 11).

표 11. 선생님 자신 혹은 동료 선생님들이 외국어가 유창하지 못한 것이 학교일선업무나 연구에 장애를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열별 / 응답내용	인문·사회계열	자연·이공계열	의·치·약계열	예·체능계열	전체
예	77	85	48	22	232(52%)
아니오	38	95	45	28	206(46%)

표 12. 선생님의 제자들이 취업할 때, 그리고 취업을 한 후에 가장 필요로 하는 외국어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취업할 때	취업한 후
(1) 영어	441	398
(2) 독일어	12	13
(3) 불어	5	8
(4) 기타	50 (※ 일본어 42)	68 (※ 일본어 61)

문항 12, 13은 학생들이 취업할 때, 또 취업한 후에 가장 필요로 하는 외국어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이다. 그 내용을 표 12로 함께 묶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생들이 취업할 때나 취업을 한 후에도 영어가 가장 필요로 하는 외국어가 될 것이라고 답한 수가 단연 높다. 그 다음으로는 비교적 낮게나마 일본어를 꼽고 있는데, 취업할 때보다도 취업을 한 후의 수치가 더 높아진 것은 구체적인 실제 취업 정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무방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part Ⅰ을 분석해보면, 응답한 교수들의 대부분이 외국어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실제 part Ⅰ의 이와 같은 통계수치는 대학에서의 학문연구와 정보교환에 있어서 외국어, 특히 영어의 중요성을 실증해 주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현행 대학원 입학시험 및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제도에 의해 치러지고 있는 외국어 고사제도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지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part Ⅱ에서 다루어 질 것이다. 또한 학문연

구에 외국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가장 적합한 시험내용과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Ⅳ. 외국어 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Part II에 대한 분석

서울대학교는 대학원에서 수학하는 데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오랫동안 외국어 시험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대학원 입학시험과 자격시험제도가 만족스럽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많은 교수들과 학생들이 기회있을 때마다 그들의 불만을 표출해 왔고 외국어 시험제도의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에서는 외국어 시험제도의 타당성과 외국어 시험과목의 적합성을 점검하고, 이 제도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전 교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재 서울대학교 대학원과정에서 실시하고 있는 외국어 시험제도에 의하면, 학생들이 석·박사과정을 마치기 위해서 모두 네 번의 외국어 시험을 치러야 한다. 그 가운데에서 두 번은 입학시험으로 두 번은 자격시험으로 치르며, 입학시험의 경우 과락하면 입학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자격시험의 경우 과락하면 논문제출자격을 얻지 못한다. 자격시험의 경우에는 석사과정 혹은 박사과정에서 그 과정을 거치는 동안 한번 외국어 시험에 합격하면 그 결과가 일정기간 동안 계속 유효하지만 입학시험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매 번 두 과목씩의 외국어시험을 치러야 하고 영어를 제1외국어로 독어, 불어, 중국어, 스페인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제2외국어로 시험을 치러야 한다. 외국어 시험이 전공시험과 같은 시기에 치러지고, 출제형식도, 특히 제2외국어의 경우,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이번에 실시한 설문조사는 1) 외국어 시험의 필요성, 2) 제1외국어로서의 영어의 자격, 3) 전공과목 연구에 필요한 외국어의 선정, 4) 필수외국어의 갯수, 5) 시험의 횟수와 시기, 6) 문제의 형식, 7) 전공과목 연구에 필요한 외국어 시험의 필요성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설문조사의 방법은 일반적인 언어능력 테스트, 즉 언어 내적인 혹은 언어의 구조적인 것에 관한 테스트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전공과목의 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단으로서 그리고 사회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언어 테스트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언어의 실제적 기능이나 의사소통 능력을 중요하게 보는 관점에서는 내용상의 타당도가 언어내적인 혹은 구조적인 면의 타당도에 못지 않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외국어 시험에 있어서 내용상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많은 교수들의 의견의 집약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외국어 전공교수의 언어에 대한 생각은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각 계열별 전공과정을 이수하는

표 1)

대학	인문대학	사회대학	자연대학	경영대학	가정대학	공과대학	미술대학	법과대학	약학대학	음악대학	치과대학	사범대학	의과대학	농과대학	수의과대학	환경대학원	생약연구소	반도체연구소	계	비고
응답자수	39	24	72	2	9	74	14	8	14	36	4	46	58	20	11	4	6	3	444	

데 필요한 어학시험의 내용을 편향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가 가지는 통계상의 오차를 가능하면 줄이기 위해 여론조사의 표준대상을 전체교수로 하였으며, 응답률을 높이고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행정채널을 이용했다.

이 설문조사에 대하여 서울대학교에 재직하는 전체교수 1,321명 중 444명이 응답하여 33.6%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 1)은 이를 대학별, 학과별로 작성한 것이다.(표 1 참조)

표 1)은 전체교수의 33.6%가 여론조사에 응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서울대학교 교수들의 대학원 입학 및 자격고사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이 결과의 분석으로 얻은 외국어 시험의 어떤 모델은 외국어 시험에 대한 하나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다.

설문 Part Ⅱ의 문항 1은 대학원 어학시험 및 논문제출 자격시험에서 외국어 시험을 치를 필요성 자체가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표 2 참조)

표 2)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교수의 83%가 외국어 시험의 필요성을 인정했으나 17%는 인정하지 않았다.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교수의 비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주목해야 할 사실은 그들의 대부분이 자연대, 공대, 음대, 사범대 자연계열, 의대, 생화학연구소 등에 속해 있는 자연계열 교수들이라는 점이다.(표 2-1 참조)

표 2)

대학	인문대학	사회대학	자연대학	경영대학	가정대학	공과대학	미술대학	법학대학	약학대학	음악대학	치과대학	사범대학	의과대학	농과대학	수의과대학	환경대학원	생약연구소	반도체연구소	계	비고 (%)
예	36	23	51	2	9	58	14	8	12	29	3	39	46	17	11	4	4	3	369	83.11
아니오	3	1	21	0	0	16	0	0	2	7	1	7	12	3	0	0	2	0	75	16.89

자연계열내에서의 그 비율을 보면 자연계열 전체 응답교수 223명 중에서 63명의 교수가 반대하여 무려 28.25%의 교수가 외국어 시험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외국어 시험에 관한 공청회에서 "급속도로 발전하는 자연과학 전공분야의 연구를 위해 외국어 시험준비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며, 인간교육을 위해 외국어 시험을 치르는 것은 낭만적인 발상"이라고

표 2-1)

대학 / 학과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국문	중문	불문	독문	노문	서문	영문	언어	국사	서양사	철학	종교	미학	계	경제	국제경제	인류	심리	리지	신문	계
예	2	5	3	1	1	2	7	2	0	2	6	4	1	36	8	5	4	2	1	3	23
아니오							1		1				1	3		1					1

대학 / 학과	자연과학대학												약학대학		환경대학원	생약연구소	반도체연구소
	물리	식물	화학	대기	천문	계산통계	해양	동물	지질	수학	미생물	계	약학	제학			
예	9	3	4	4	3	7	1	2	4	8	6	51	6	6	4	4	3
아니오	2	1	4	1	0	1	1	1	8	1	1	21	0	2	0	2	0

대학 / 학과	음악대학					공과대학																
	국악	작곡	성악	기악	계	화학	컴퓨터	자원	전자	조선	기계설비	섬유	기계	건축	항공	공업화학	금속	원자핵	무기재료	산업	토목	제어계측	계
예	5	10	3	11	29	2	2	4	3	6	1	5	3	4	2	6	6		2	2	6	3	58
아니오	0	0	0	7	7				1	1	1		1			1	3	3	1	1		3	16

대학 / 학과	농과대학								수의과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경영대학	가정대학	미술대학	법과대학
	식품	농화학	원예	농경제	임산	농공기계	농생물	계							
예	2	3	4	1	2	3	2	17	11	43	3	2	9	14	8
아니오	0	1	0	0	0	1	1	3	0	12	1	0	0	0	0

대학 / 학과	사범대학															
	국어	독어	영어	사회	역사	지리	국민윤리	교육	체육	수학	지구과학	지질	물리	생물	화학	계
예	3	3	4	3	2	2	2	4	4	3	1	1	3	3	1	39
아니오		1								2	1	1	1	1		7

주장했던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외국어 시험을 치르는 것이 정말 전공과목 연구에 방해가 되는지, 아니면 외국어 공부와 전공과목의 연구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지 하는 것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살펴보아야 할 일이다.

Part Ⅱ의 문항 2는 외국어 시험의 필요성을 인정한 교수들에게 영어를 제 1 외국어로 부과할 필요가 있는지를 묻고 있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에는 외국어 시험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교수들 가운데서도 응답을 한 교수들이 있어서 응답교수가 390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100명이 반대하여 26%의 반대율을 보였다. (표 3 참조)

표 3)

대학	인문대학	사회대학	자연대학	경영대학	가정대학	공과대학	미술대학	법과대학	약학대학	음악대학	치과대학	사범대학	의과대학	농과대학	수의과대학	환경대학원	생약연구소	반도체연구소	계	비고 (%)
예	19	17	46	2	6	58	6	7	11	10	2	28	41	16	11	3	3	3	290	74.36
아니오	17	4	14	0	1	8	7	1	1	16	1	16	7	3	0	1	3	0	100	25.64

문항 1에 대한 응답이 계열별 특징을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문항 2에 대한 응답은 과별 특징을 두드러지게 드러내보여 영어를 제 1 외국어로서 필수적으로 시험을 치르게 하는 점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3-1 참조)

응답자의 50% 이상이 반대한 교수들이 속해 있는 학과를 보면 인문대학의 국문, 중문, 불문, 서양사, 철학, 종교, 미학, 사회대학의 심리, 신문, 자연과학대학의 화학, 천문, 계산통계, 사범대학의 독어, 역사, 지리, 수학, 지구과학, 지질, 화학 등의 학과들이며, 생화학연구소와 미술대학도 여기에 속한다. 그들 가운데에서 반대율이 특히 높은 몇 개의 학과를 보면 인문대학의 중문, 불문, 종교, 미학, 사회대학의 신문, 음악대학의 작곡,

표 3-1)

대학 / 학과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국문	중문	불문	독문	노문	서문	영문	언어	국사	서양사	철학	종교	미학	계	경제	국제경제	인류	심리	지리	신문	계
예	1	2	1	1	1	2	4	2	0	1	3	1	0	19	8	5	4	1	1	1	20
아니오	1	3	2	0	0	0	3	0	0	1	3	3	1	17	1	0	0	1	0	2	4
	○	◎	◎				△			○	○	◎	◎					○		◎	

대학 / 학과	자연과학대학												약학대학		환경대학원	생약연구소	반도체연구소
	물리	식물	화학	대기	천문	계산통계	해양	동물	지질	수학	미생물	계	약학	제약			
예	8	3	4	4	2	5	1	3	4	7	5	46	6	5	3	3	3
아니오	3	0	2	0	1	3	0	0	0	3	2	14	0	1	1	3	0
	△		○		○	○				△	△					○	

대학 / 학과	음악대학					공과대학																
	국악	작곡	성악	기악	계	화학	컴퓨터	자원	전자	조선	기계설비	섬유	기계	건축	항공	공업화학	금속	원자핵	무기재료	산업	토목	제어계측	계
예	3	3	2	2	10	4	2	4	5	5	1	3	4	4	2	5	5	1	2	2	6	3	58
아니오	2	7	0	7	16		1			1		2		0			2		1			1	8
	○	◎		◎	◎							△					△						

대학 / 학과	농과대학								수의과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경영대학	가정대학	미술대학	법과대학
	식품	농화학	원예	농경제	임산	농공기계	농생물	계							
예	2	3	4	1	2	2	2	16	11	41	2	2	6	6	7
아니오		1				2		3	0	7	1	0	1	7	1
						○								◎	

대학 \ 학과	사범대학															
	국어	독어	영어	사회	역사	지리	국민윤리	교육	체육	수학	지구과학	지질	물리	생물	화학	계
예	2		3	3	1	1	2	3	4	1			3	4	1	28
아니오	1	4	1		1	1		1		2	1	2	1		1	16
		◎			○	○				◎	◎	◎			○	

기악, 미술대학의 각 학과, 사범대학의 독어, 수학, 지구과학, 지질 등의 학과들이다. 반대율이 50% 이상의 학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학과들의 특징상 반드시 영어를 제 1 외국어로 부과할 필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인문대학의 중문과나 철학, 종교, 음악대학의 작곡, 기악, 사범대학의 독어, 수학, 지구과학, 지질학과 교수들이 제 1 외국어로 영어시험을 치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데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는 듯하다.

Part Ⅱ의 문항 3은 영어를 제 1 외국어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학과의 특징에 따라 제 1 외국어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물음이었다. 이 물음에 대해서 제 2 문항에서 영어를 제 1 외국어로 해야 한다고 대답했던 교수들도 상당히 대답을 했는데 총 444명 가운데 187명의 교수가 응답을 했다. (표 4 참조)

표 4)

대학	인문대학	사회대학	자연대학	경영대학	가정대학	공과대학	미술대학	법과대학	약학대학	음악대학	치과대학	사범대학	의과대학	농과대학	수의과대학	환경대학원	생약연구소	반도체연구소	계	비고 (%)
예	17	4	18	1	1	16	7	2	2	21	2	13	12	5	2	1	1	0	125	66.84
아니오	1	2	18	0	0	14	3	0	2	6	0	4	9	1	0	0	1	1	62	33.16

그 가운데 125명의 교수가 찬성해서 67%의 찬성율을 보였다. 따라서 영어를 제 1 외국어로 선택하는 데 반대한 교수들은 대체로 학과의 특성에 따라 제 1 외국어를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Part Ⅱ의 문항 4는 학과의 특성에 따라 제 1 외국어를 선택한다면 어떤 외국어를 제 1 외국어로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157명의 교수가 응답했는데, 그중 100명의 교수가 영어, 28명의 교수가 독일어,

표 5)

대학	인문대학	사회대학	자연대학	경영대학	가정대학	공과대학	미술대학	법과대학	약학대학	음악대학	치과대학	사범대학	의과대학	농과대학	수의과대학	환경대학원	생약연구소	반도체연구소	계	비고 (%)
영 어	10	4	19	0	1	16	2	2	2	11	0	6	16	6	4	0	1	0	100	63.69
독 어	5	0	0	0	0	0	1	1	0	13	0	4	3	0	1	0	0	0	28	17.83
불 어	5	2	3	0	0	0	0	0	0	2	0	0	1	0	0	0	0	0	13	8.28
기 타	1	0	2	0	0	4	1	0	0	0	0	1	6	1	0	0	0	0	16	10.19

13명의 교수가 불어, 16명의 교수가 기타에 대답했다.(표 5 참조)

영어 외에 다른 외국어 과목을 제 1 외국어로 택해야 한다고 답한 교수의 수를 합하면 67명이었는데, 이 수는 문항 3에 대한 응답수 125에 비하면 훨씬 적은 수여서 학과의 특성에 따라 제 1 외국어를 택한다 해도 어쩔 수 없이 영어를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지만, 문항 2의 설문에 대해서 언급한 특정학과들에 대해서는 영어를 제 1 외국어로 하지 않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문항 5는 대학원 입학시험과 자격시험에서 몇 과목의 외국어 시험을 치를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전공과목 연구에 필요한 외국어가 몇 개인지를 물었다. 444명 중에서 434명이 응답을 했는데, 없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3명에 불과했고, 하나라고 대답한 교수가 201명으로 46%, 둘이라고 대답한 교수가 182명으로 42%, 셋 이상이라고 대답한 교수가 11%였다.(표 6 참조)

표 6)

대학	인문대학	사회대학	자연대학	경영대학	가정대학	공과대학	미술대학	법과대학	약학대학	음악대학	치과대학	사범대학	의과대학	농과대학	수의과대학	환경대학원	생약연구소	반도체연구소	계	비고 (%)
없 다	0		0	0	0	1	0	0	0	0	0	0	1	0	0	0	1	0	3	0.69
1 개	5	13	43	1	5	35	1	4	6	5	2	27	35	11	3	2	2	1	201	46.31
2 개	18	6	25	1	3	35	11	4	7	26	1	15	10	9	7	2	1	1	182	41.93
3개이상	14	7	7	0	0	3	1	0	2	2	0	3	6	0	1	0	2	0	48	11.05

그중 인문대학과 음악대학에서는 둘 이상에 절대다수의 교수가 답했고, 자

표 6-1)

대학 / 학과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국문	중문	불문	독문	노문	서문	영문	언어	국사	서양사	철학	종교	미학	계	경제	국제경제	인류	심리	지리	신문	계
없 다														0							0
1 개				1	1	0	3							5	5	4	2			2	13
2 개		3	3			1	3	1			3	2	1	18	2		2		1	1	6
세개이상	1	2				1	1	1	1	1	3	2	1	14	1		4	2			7
	◎	◎	◎				◎	◎	◎	◎	◎	◎	◎	◎			◎				

대학 / 학과	자연과학대학												약학대학		환경대학원	생약연구소	반도체연구소
	물리	식물	화학	대기	천문	계산통계	해양	동물	지질	수학	미생물	계	약학	제약			
없 다											0	0	0	0	1	0	1
1 개	10	4	6	4	2	6	1	2	2	2	4	43	1	5	2	2	1
2 개	1		2	1	1	2	1	1	3	10	3	25	4	3	1	1	1
세개이상									5	2		7	1	1	0	2	0
									◎	◎			◎				

대학 / 학과	음악대학					공과대학																	
	국악	작곡	성악	기악	계	화학	컴퓨터	자원	전자	조선	기계설비	섬유	기계	건축	항공	공업화학	금속	원자핵	무기재료	산업	토목	제어계측	계
없 다					0												1						1
1 개				5	5	2	3	3	1	2	1	1	3		2	2	3	3	2	1	2	4	35
2 개	3	10	3	10	26	2		1	4	4	1	3	2	3		5	3		1	1	4	1	35
세개이상	1			1	2							1		1			1						3
					◎	○			◎	◎	○	◎		◎		◎	◎			○	◎		

대학 / 학과	농과대학								수의과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경영대학	가정대학	미술대학	법과대학
	식품	농화학	원예	농경제	임산	농공기계	농생물	계							
없 다								0	0	1	0	0	0	0	0
1 개	1	4	2	1	1	1	1	11	3	35	2	1	5	1	4
2 개	1		2		1	3	2	9	7	10	2	1	3	11	4
세개이상								0	1	6	0	0	0	1	0
			○		○	◎	◎		◎		○	○		◎	○

대학 / 학과	사범대학															
	국어	독어	영어	사회	역사	지리	국민윤리	교육	체육	수학	지구과학	지질	물리	생물	화학	계
없 다																0
1 개	1	1	4	1		1		2	3	3	2		4	3	2	27
2 개	1	1		2	1	1	2	3	1	1				1		15
세개이상	1	1								1						3
	◎	◎		◎	◎	○	◎	◎								

연대학의 지질학과와 수학과, 약학대학, 공과대학의 전자, 조선, 섬유, 건축, 공업화학, 금속, 토목, 농과대학의 농공기계, 농생물학과와, 수의과대학, 미술대학, 사범대학의 어문계열 교수들이 두개 이상의 외국어 시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뿐, 그외의 교수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표 6-1 참조)

이 결과로 판단해 보면, 외국어 두개 이상이 꼭 필요한 학과를 선별해 제 2외국어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도 실험해 볼 만한 것으로 판단된다.

Part Ⅱ의 문항 6은 어느 외국어를 시험과목으로 할 것인가에 관한 질문이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 이상의 표시가 허용되었는데 총 응답자 444명이 평균 1.84개의 외국어에 응답해 총 810명이 응답했다. 응답자 중 48.39%가 영어, 16.41%가 독일어, 13.95%가 불어, 4.81%가 중국어 1.23%가 서반아어, 2.60%가 러시아어, 기타 12.71%로 답해, 외국어 시험을 다변화해야 할 필요를 절실하게 했다.(표 7 참조)

표 7)

대학	인문대학	사회대학	자연대학	경영대학	가정대학	공과대학	미술대학	법과대학	약학대학	음악대학	치과대학	사범대학	의과대학	농과대학	수의과대학	환경대학원	생약연구소	반도체연구소	계	비고 (%)
영 어	33	15	67	2	8	77	11	6	14	35	4	43	38	19	10	3	4	2	392	48.39
독 어	17	6	10	0	2	12	3	4	6	31	0	18	13	3	3	0	2	0	133	16.41
불 어	22	8	16	0	4	5	6	1	1	20	0	14	10	1	0	0	2	0	113	13.95
중국어	15	2	1	1	1	3	2	0	0	3	0	8	2	0	0	0	0	0	39	4.81
서반아어	3	2	1	0	0	0	0	0	0	2	0	2	0	0	0	0	0	0	10	1.23
러시아어	4	2	5	0	0	2	0	0	0	2	0	4	1	0	0	0	0	0	20	2.60
기 타	3	1	5	0	1	44	2	3	1	7	0	6	14	3	7	2	2	0	103	12.71

특히 영어의 필요성에 대해 50% 미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한 점을 감안하면, 제 1 외국어 선택을 의무화하지 말고 필요한 학과는 선택에 따라 외국어를 둘, 그렇지 않은 학과는 자유선택에 따라 외국어 하나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과별 교수들의 응답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7-1 참조)

Part Ⅱ의 문항 7~8은 외국어 시험 시행횟수에 관한 것이다. 그중 문항

표 7-1)

대학 / 학과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국문	중문	불문	독문	노문	서문	영문	언어	국사	서양사	철학	종교	미학	계	경제	국제경제	인류	심리	지리	신문	계
영 어	1	5	2	1	1	2	5	2		2	6	4	2	33	7	3		2	1	2	15
독 어	1		1	1			2	1		2	6	2	1	17	1			2	1	2	6
불 어	1		2	0		2	4	1		2	5	4	1	22	2		1	2	1	2	8
중국어	1	5					1	1	1		2	3	1	15	1					1	2
서반아어						2	0	1						3			1			1	2
러시아어	1					0		1	1			1		4			1			1	2
기 타								1	1		0	1		3				1			1

대학 / 학과	자연과학대학												약학대학		환경대학원	생약연구소	반도체연구소
	물리	식물	화학	대기	천문	계산통계	해양	동물	지질	수학	미생물	계	약학	제약			
영 어	11	4	7	5	3	8	2	3	2	15	7	67	6	8	3	4	2
독 어			1						2	5	2	10	4	2	0	2	0
불 어										14	2	16	1	0	0	2	0
중국어								1				1	0	0	0	0	0
서반아어											1	1	0	0	0	0	0
러시아어									2	3		5	0	0	0	0	0
기 타		1	1			3						5	3	1	2	2	0

대학 / 학과	음악대학					공과대학																	
	국악	작곡	성악	기악	계	화학	컴퓨터	자원	전자	조선	기계설비	섬유	기계	건축	항공	공업화학	금속	원자핵	무기재료	산업	토목	제어계측	계
영 어	5	10	3	17	35	4	3	4	5	7	2	5	5	4	2	7	8	3	3	3	6	6	77
독 어	1	10	3	17	31	1			2			1		1		3	2				2		12
불 어	1		3	16	20							1		2		1					1		5
중국어	3				3				1					1			1						3
서반아어			2		2																		0
러시아어			2		2				1								1						2
기 타	2	3	2		7				4	4	1	4	2	3		4	8		2	3	4	5	44

대학 / 학과	농과대학								수의과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경영대학	가정대학	미술대학	법과대학
	식품	농화학	원예	농경제	임산	농공기계	농생물	계							
영 어	2	4	4	1	1	4	3	19	10	38	4	2	8	11	6
독 어		2					1	3	3	13	0	0	2	3	4
불 어		1						1	0	10	0	0	4	6	1

중국어								0	0	2	0	1	1	2	0
서반아어								0	0	0	0	0	0	0	0
러시아어								0	0	1	0	0	0	0	0
기 타					1	1	1	3	7	14	0	0	1	2	3

대학 / 학과	사범대학															
	국어	독어	영어	사회	역사	지리	국민윤리	교육	체육	수학	지구과학	지질	물리	생물	화학	계
영 어	3	1	4	3	1	2	2	5	4	5	2	1	4	4	2	43
독 어	1	3	1	2	0	0	2	4	1	3	1	1				18
불 어	1	2	1	1			2	1	1	3	1	1				14
중국어	1				1	1	2	1	1	1						8
서반아어									1	1	0					2
러시아어							1		1	1	1					4
기 타									1	2	1	1				6

7은 현행제도의 적절성을 묻고 있다. 즉 현행 외국어 시험제도에 따르면 대학원 학생이 석·박사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입학시험 2회, 자격시험 2회를 치르게 되는데, 이것이 적당한지를 묻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적당하다고 대답한 교수의 수가 응답자 429명 중 153명으로 35.66%, 적당하지 못하다고 응답한 교수의 수가 276명으로 64.44%를 차지하여, 현행제도의 개선이 절실히 필요함을 말해 주고 있다.(표 8 참조)

표 8)

대학	인문대학	사회대학	자연대학	경영대학	가정대학	공과대학	미술대학	법과대학	약학대학	음악대학	치과대학	사범대학	의과대학	농과대학	수의과대학	환경대학원	생약연구소	반도체연구소	계	비고(%)
예	14	5	8	0	4	12	9	0	8	24	0	16	32	4	7	2	2	0	153	35.66
아니오	23	17	62	2	4	64	3	6	8	10	4	31	21	14	3	2	4	2	276	

특히 미술대학, 음악대학, 의과대학, 수의과대학 등 일부대학의 교수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교수들이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이 문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이다.

Part Ⅱ의 8번 문항은 현행제도가 적당하지 못할 경우 몇 회가 가장 적절한지에 관한 질문이었는데, 문항 7에 응답한 교수들이 설문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응답한 경향이 있긴 하지만, 285명의 교수가 응답하고 그중 233명의 교수가 대학원 석·박사 전 과정을 통해 1회에 응답해 응답교수 중 81.75%를 차지했고, 2회 이상에 응답한 교수 수가 8.8%밖에 되지 않아 현행제도의 실시횟수를 줄여도 과감히 줄여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표 9 참조)

표 9)

대학	인문대학	사회대학	자연대학	경영대학	가정대학	공과대학	미술대학	법과대학	약학대학	음악대학	치과대학	사범대학	의과대학	농과대학	수의과대학	환경대학원	생약연구소	반도체연구소	계	비고(%)
0 회	2	3	9	0	0	4	0	0	0	0	0	2	6	0	0	0	1	0	27	
1 회	19	9	50	2	3	55	4	6	8	11	2	28	15	14	4	2	3	2	233	81.75
2 회	2	5	4	0	0	3	3	0	1	1	0	2	2	2	0	0	0	0	25	8.77
3 회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Part Ⅱ의 문항 9와 10은 현행 외국어 시험의 실시시기에 관한 것이다. 문항 9는 현행제도에 만족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고, 문항 10은 만족하지 않는다면 언제가 좋은가에 대한 물음이었다. 이에 대해 전체 응답자 444명 중 377명이 응답했는데, 응답자 중 69.76%인 263명이 현재 실시되는

표 10)

대학	인문대학	사회대학	자연대학	경영대학	가정대학	공과대학	미술대학	법과대학	약학대학	음악대학	치과대학	사범대학	의과대학	농과대학	수의과대학	환경대학원	생약연구소	반도체연구소	계	비고(%)
예	20	13	36	1	5	41	8	2	7	28	2	31	33	15	8	2	5	1	263	69.76
아니오	14	6	24	0	2	32	2	4	6	5	2	12	4	3	1	0	1	0	114	30.24

시기에 만족을 표시했고, 30.24%인 114명이 불만을 표시했다.(표 10 참조)

그리고 불만을 가진 교수들 가운데에서는 47명이 방학 중에, 24명이 학기 중 다른 시기에, 45명이 응시자가 원하는 시기에 시험을 치를 것을 제안했다. 시험을 치르는 시기의 변경은 실제로 행정적, 경제적, 기술적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시기로 현행제도를 고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학생들이 보다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전공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험을 치르는 시기의 변경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TOEFL과 같은 표준화된 영어시험 성적을 인정하거나 어학연구소가 이와 비슷한 형태의 어학시험을 개발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Part Ⅱ의 문항 11과 12는 시험과목, 실시횟수와 함께 가장 큰 문제로 생각되는 출제형식에 관한 것이다. 문항 11은 현재 객관식으로 시행되는 영어시험의 문제형식에 만족하느냐는 물음이었다. 이에 대해 444명 중 381명이

표 11)

대학	인문대학	사회대학	자연대학	경영대학	가정대학	공과대학	미술대학	법과대학	약학대학	음악대학	치과대학	사범대학	의과대학	농과대학	수의과대학	환경대학원	생약연구소	반도체연구소	계	비고(%)
예	9	6	13	0	3	20	1	1	5	0	2	9	15	10	5	0	1	1	103	
아니오	25	16	47	2	5	53	7	7	8	27	2	31	30	8	4	3	3	1	278	72.96

표 12)

대학	인문대학	사회대학	자연대학	경영대학	가정대학	공과대학	미술대학	법과대학	약학대학	음악대학	치과대학	사범대학	의과대학	농과대학	수의과대학	환경대학원	생약연구소	반도체연구소	계	비고(%)
주관식 단답형	2	0	3	0	0	1	0	0	0	0	0	1	0	0	0	0	0	0	7	2.31
주관식 장문독해	7	4	7	0	1	18	2	1	1	1	1	9	8	2	2	0	1	0	65	21.45
주·객관식 혼합	11	6	8	1	3	11	0	0	1	1	0	6	7	4	1	0	0	0	60	19.80
각과에서 필요한것	9	7	34	1	1	23	7	4	4	32	1	20	10	3	0	2	4	0	162	53.46
기 타	0	0	1	0	0	2	0	0	2	0	0	0	1	2	0	1	0	0	9	2.97

응답했고 그 가운데서 응답자의 72.96%인 278명이 만족하지 않고 있었다. (표 11 참조)

문항 12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어떤 형식이 좋은가를 묻는 질문이었다. 응답자 303명 중 53.46%인 162명이 각 과에서 필요로 하는 형식, 21.45%인 65명이 주관식 장문독해, 19.80%인 60명이 객관식과 주관식의 혼합형, 2.31%인 7명이 주관식 단답형을 원하고 있었다.(표 12 참조)

그러나 이 문제는 각 학과에서 원하는 형식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명백한 대답이 없는 한 바람직하다든가 그렇지 못하다는 판단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뚜렷한 윤곽이 드러난다 해도 출제를 누가 할 것이며, 어떤 형식으로 채점을 하여, 어떻게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것인가라는 복잡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어 보다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나의 예로 89년 2학기 논문제출 자격고사가 각 대학의 책임하에서 치루어졌는데, 영어의 경우 그 가운데 많은 대학들이 영문과 교수들에게 출제를 의뢰했고 영문과 교수들은 각자의 기호에 따라 출제했으며 대학간의 균형이나 공정성 같은 문제를 고려할 게제가 못되었다. 더욱이 주관식문제를 어떻게 채점했는지, 합격선을 어떻게 결정했는지를 밝히고 있지 않아 시험실시의 필요성 그 자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입학시험이나 자격고사가 전공과정 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외국어능력의 측정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측정척도가 있어야 하며,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와 관리가 필요하다. 대학원 과정에서 요구되는 외국어 시험은 일정한 언어능력에의 도달여부를 가려내는 능력측정의 성격과 아울러 개인의 능력뿐 아니라, 계열간의 능력 차이도 공평하게 분별할 수 있는 변별력이 문항내 뿐 아니라 문항간에도 있어야 하며, 동시에 객관성과 신빙성, 타당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제도의 개선이 어렵다. 더욱이 시험이 치루어질 때마다 난이도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이 문제는 더욱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

표 13)

대학	인문대학	사회대학	자연대학	경영대학	가정대학	공과대학	미술대학	법과대학	약학대학	음악대학	치과대학	사범대학	의과대학	농과대학	수의과대학	환경대학원	생약연구소	반도체연구소	계	비고
예	17	8	31	0	5	5	4	5	7	14	3	21	26	7	8	2	0	1	203	55.62
아니오	18	12	27	0	1	1	5	3	3	21	1	15	17	7	1	1	2	1	162	

하면 가장 이상적인 문제형식은 서로 다른 계열의 많은 수험생들이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나타낸 반응을 토대로 객관성, 신빙성, 타당성이 점검될 수 있는 객관식이나 주관식 문제——주관식이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많지만——가 바람직하다.

출제와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문항의 난이도의 조정과 더불

표 13-1)

대학 / 학과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국문	중문	불문	독문	노문	서문	영문	언어	국사	서양사	철학	종교	미학	계	경제	국제경제	인류	심리	지리	신문	계
예	1	4	1	1	1		2	1			2	3	1	17	3	1	2	1		1	8
아니오		1	1			2	5	1	1	2	3	1	1	18	5	3		1	1	2	12

대학 / 학과	자연과학대학												약학대학		환경대학원	생약연구소	반도체연구소
	물리	식물	화학	대시	천문	계산통계	해양	동물	지질	수학	미생물	계	약학	제약			
예	3	2	1	2	3	4	1	1	2	8	4	31	2	5	2	0	1
아니오	3	2	5			4	1	2	1	4	3	27	2	1	1	2	1

대학 / 학과	음악대학					공과대학																
	국악	작곡	성악	기악	계	화학	컴퓨터	자원	전자	조선	기계설비	섬유	기계	건축	항공	공업화학	금속	원자핵	무기재료	산업	토목	제어계측	계
예	4	3	3	4	14	3	1	1	4	3	1	5	2	3	1	3	4		1	3	4	3	44
아니오	1	7		13	21	1	1	2	1	3	1		1	1	1	4	4	2	1		2	2	27

대학 / 학과	농과대학								수의과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경영대학	가정대학	미술대학	법과대학
	식품	농화학	원예	농경제	임산	농공기계	농생물	계							
예		3		1		2	1	7	8	26	3	0	5	4	5
아니요			2		2	1	2	7	1	17	1	0	1	5	3

대학 \ 학과	사범대학															
	국어	독어	영어	사회	역사	지리	국민윤리	교육	체육	수학	지구과학	지질	물리	생물	화학	계
예	2	2	1	2	1	1	1	3	1	2	0	1	2	1	1	21
아니오	1	2	2	1	1			2		1	2		1	2		15

어 변별도도 조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때에는 어떤 계열의 특수한 그룹에 대한 혹은 어떤 해의 특수한 그룹에 대한 합격판정이 임의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자격시험이나 입학시험은 출제자의 직관에 의존할 뿐, 이러한 표준화 작업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입학시험과 자격시험에서 외국어 시험은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문제은행제도(pool system)의 도입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서울대학교도 어학연구소를 구심점으로 하여 어떤 형태이든 외국어 시험의 표준화 작업을 서둘러야 하며 예산상의 지원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Part Ⅱ의 문항 13과 14는 제2외국어의 출제형식에 관한 것이다. 문항 13은 현재 주관식 독해시험으로 시행되는 제2외국어 시험형식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응답교수 365명 중 55.62%인 203명의 교수가 만족하고 있었고 44.38%인 162명의 교수가 불만을 표시했다. (표 13 참조)

그러나 인문대학, 자연대학, 음악대학의 대부분의 학과와 자연대학과 공과대학의 일부 학과에 소속된 교수들이 제2외국어의 출제형식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어떤 형식으로든 개선의 필요를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3-1 참조)

문항 14는 개선의 필요를 느끼는 교수들 가운데서, 개선한다면 어떤 형식의 시험을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냐를 묻는 질문이었다. 응답자 156명 가운데에서 60.89%인 95명이 각 과에서 필요로 하는 형식에 답했고, 26.28%인 41명이 주관식과 객관식의 혼합형에 답했다. (표 14 참조)

그러나 이 문제는 영어문제 출제형식에 관한 문제와 마찬가지로 각 학과에서 개별적으로 치르기에는 많은 기술적, 행정적 문제가 연루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객관성과 신빙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실시하기에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우선 주·객관식 혼합형식을 채택해 볼 만하다.

Part Ⅱ의 문항 15는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서, 교양외국어와 전공외국어 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느냐를 물었다. 이에 대

표 14)

대학	인문대학	사회대학	자연대학	경영대학	가정대학	공과대학	미술대학	법과대학	약학대학	음악대학	치과대학	사범대학	의과대학	농과대학	수의과대학	환경대학원	생약연구소	반도체연구소	계	비고
주·객관식 혼합	9	6	3	0	1	3	2	0	3	0	0	3	6	4	0	1	0	0	41	26.28
객관식	2	1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4	
주관식 단답형	2	0	1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4	
각과에 필요한것	7	2	17	1	0	14	5	4	1	18	0	10	11	2	1	0	1	1	95	60.89
기 타	0	1	2	0	0	7	0	0	0	0	0	1	1	1	0	0	0	0	12	

하여 392명의 응답자 중 51.28%인 201명이 구분해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고, 48.72%인 191명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답해 그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음을 보여주었다.(표 15 참조)

표 15)

대학	인문대학	사회대학	자연대학	경영대학	가정대학	공과대학	미술대학	법과대학	약학대학	음악대학	치과대학	사범대학	의과대학	농과대학	수의과대학	환경대학원	생약연구소	반도체연구소	계	비고
예	21	8	26	2	4	28	8	5	8	22	1	23	26	8	5	2	2	2	201	
아니오	14	13	32	0	4	41	4	2	4	13	1	23	22	10	4	1	2	1	191	

특히, 사회대학, 자연과학대학, 가정대학, 공과대학, 사범대학 자연계, 농대 등에 속해 있는, 학과의 특성이 강한 학과에서는 대체로 구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15-1 참조)

그러나 전공계열에 따른 문제의 구분은 내용상 타당도를 다소 높혀 주겠지만, 가장 이상적인 언어능력의 측정을 목표로 할 때 그 명분이 뚜렷하지 않다. 언어능력의 대부분이 일반적이고 공통되는 부분에 상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계열별 교수들이 전공계열에 따른 출제를 요구하거나 단과대학 책임하의 출제를 요구하는 것은 상당부분 행정편의 혹은 시험편의주의적 욕구와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도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것은

실제로 필요한 언어능력의 배양이라는 시험의 근본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론조사의 결과에 대학이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을 것이다.

대학원 입학시험과 자격시험에 대한 교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외국어 시험의 필요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견이 없다. 그러나

표 15-1)

대학 / 학과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국문	중문	불문	독문	노문	서문	영문	언어	국사	서양사	철학	종교	미학	계	경제	국제경제	인류	심리	지리	신문	계
예	1	2	1	1	1	2	4	1	0	1	4	2	1	21	3	1	1	1		2	8
아니오		2					4	1	1	1	2	2	1	14	5	2	3	1	1	1	13

대학 / 학과	자연과학대학												약학대학		환경대학원	생약연구소	반도체연구소
	물리	식물	화학	대기	천문	계산통계	해양	동물	지질	수학	미생물	계	약학	제약			
예	4	2	1	1	2	4	1	1	2	4	4	26	5	3	2	2	2
아니오	3	2	6	2	1	3	1	2	3	6	3	32	0	4	1	2	1

대학 / 학과	음악대학					공과대학															
	국악	작곡	성악	기악	계	화학	컴퓨터	자원	전자	조선	기계설비	섬유	기계	건축	항공	공업화학	금속	원자핵	무기재료	산업	토목	제어계측	계
예	5	10	2	5	22		1	1	2	4	1	3	1	4	2	4	2		1	1	1	1	28
아니오			1	12	13	3	1	2	3	2	1	2	2			3	6	2	2	2	5	5	41

대학 / 학과	농과대학								수의과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경영대학	가정대학	미술대학	법과대학
	식품	농화학	원예	농경제	임산	농공기계	농생물	계							
예		2	2		1	2	1	8	5	26	1	2	4	8	5
아니오	2	2	2	1		2	1	10	4	22	1	0	4	4	2

대학 / 학과	사범대학															
	국어	독어	영어	사회	역사	지리	국민윤리	교육	체육	수학	지구과학	지질	물리	생물	화학	계
예	2	4	2	2	1	1	2	2	0	1	1	1	2	2		23
아니오	1	0	2	1	1	1		3	4	4	0	1	1	2	2	23

그들은 영어를 제 1 외국어로 부과하는 데 대해 상당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외국어 시험을 두 과목 치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속된 학과에 따라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불만을 표시했다. 대부분의 교수들이 전공과목 연구에 필요한 외국어를 하나라고 답했으며, 영어 아닌 다른 외국어가 필요하다고 답한 교수의 수도 상당했다. 학위과정 이수에 필요한 기간내에 치러야 하는 시험횟수에 대해서는 더욱 강한 불만을 표시했으며, 많은 교수들이 전 과정을 통해 한 번만 외국어 시험을 치르는 데 동의했다. 시험시기에 대해서도 전공시험에 연동시키지 말고 자유로운 시기에 치르는 것을 선호하고 있었으며 그 이유는 아마 전공시험과 어학시험의 중복을 피함으로써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출제의 형식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교수들이 영어와 제 2 외국어 모두 각 과에서 필요로 하는 형식을 선호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문제형식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리고 전공에 관련된 외국어 시험과 계열에 공통되는 외국어 시험의 분리를 주장하는 교수들이 과반수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결과를 토대로 해서 판단해 보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외국어 시험제도는 기술적, 행정적인 면을 고려해서 어떤 형태로든 전반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V. 맺 음 말

이 여론조사를 토대로 하고, 출제기술상의 어려움과 행정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하나의 가능한 외국어 시험모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학문연구에 있어서나 학문교류에 있어서 중요성이 단연 높은 영어의 경우, 학문연구와 교류를 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험내용과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다만 시야가 넓어지면서 다양한 문화의 다층적 요소를 받아들이고 그 분야에 대해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영어 이외의 언어를 주전공으로 하고 있거나 그런 언어와 더 깊이 관련되는 일부 학과의 경우 학과의 특수성을 살려 시험의 비중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갈수록 요구가 높아지는 일본어 같은 언어도 시험의 대

상이 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의견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2. 모든 계열, 모든 학과 시험생들에게 일괄적으로 두 개의 외국어시험을 치르게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러가지 외국어를 동시에 필요로 하는 인문, 예능계열의 특정학과들과 타계열의 소수학과를 제외하면, 오늘날처럼 훌륭한 번역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시대에 외국어 공부를 하느라고 많은 시간과 정력을 소모하는 것은 낭비로 여겨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시험횟수는 줄여야 한다. 대부분의 교수들이 석·박사 전과정을 통해 1회만 시험을 치르기를 요구하고 있다. 꾸준히 공부하지 않으면 외국어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전과정을 통해 1회의 시험을 치르는 것은 전공과목연구를 불가능하게 할 우려도 없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석·박사과정에서 네 번의 외국어 시험을 치르는 것은 노력의 낭비이며, 오히려 특정한 시기에 외국어 시험에 실패하여, 전공과정 연구수행을 그르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해진 외국어 시험에 합격했을 경우 그것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어떤 연구과정이 그 기간동안에 이루어지면 외국어 시험을 다시 치르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만약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할 경우 석·박사과정이 모두 6년내에 끝나면 대학원생은 두 번만 외국어 시험을 치르면 된다.

4. 외국어 시험의 실시시기는 전공시험의 그것과 분리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시험문제를 표준화하고 문제은행제도(pool system)를 공고히 하면 많지 않은 행정력으로도 1년에 네 차례 이상 시험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문제의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문제은행제도가 정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겠지만, 그렇게 되면 많은 학생들이 편리한 시기에 외국어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되고 그만큼 전공과목 연구의 흐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입학시험의 경우라면, 외국처럼 입학허가를 받기 전에 일정한 기준 이상의 점수를 받도록 규정해도 좋을 것이다.

5. 출제형식은 구문을 이해하고 전공과정의 내용을 외국어로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을 객관식으로 묻는 형식이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교수들이 영어나 제2외국어 모두 각 과에서 필요로 하는 형식이 좋다고 답하고 있으나, 이러한 대답은 매우 현실적이지 못하다. 각 과에서 필요로 하는 이상적인 형식을 찾을 수 있다고 해도 출제기술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는 객관성과 신빙성을 잃게 될 것이고, 행정적으로도 지극히 복잡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문제는 어떻게 하면 객관식의 형식 속에서 필요한 능력을 시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전문가들의 연구와 문제형식의 표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6. 외국어 시험문제를 전 계열에 공통되는 문제와 계열전공에 관련되는

문제로 분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필요하지 않지만, 현재로서는 분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상적으로는 외국어 시험이 해당 외국어의 기본구문의 이해와 필요한 내용을 외국어로 표현하는 내용에 관한 시험일 경우 전공과 관련되는 외국어를 잘하는 학생이 전공과 관련되지 않은 외국어를 못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출제자가 대학원 과정에서 치러지는 외국어 시험의 목적을 잘못 이해하여 어려운 어휘나 잘 사용되지 않는 구석진 문법 문제를 출제할 때는 그 두가지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외국어 시험의 성격을 보다 명백히 규정짓고 표준화된 문제가 만들어 질 때까지 여러 교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공통문제와 계열전공에 관련되는 문제를 분리하여 출제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번 타당성조사는 현행 대학원 외국어 시험 전반에 걸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에 따라 지금까지 간과되어 왔던 문제점들을 새로이 인식하고 개선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 주었다. 학문연구에 외국어의 습득이 요구되는 것은 새삼 재론할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과연 어떤 능력이 더 필요하며 그 능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익히고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현실에 대한 깊은 인식이 없이는 결정될 수 없다. 각 학문의 성격과 세계적 동향에 비추어 불필요한 노력의 낭비를 줄이고 깊이 있는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적합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인 것이다. 외국어 능력을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적절한 방법과 내용으로, 그것을 꼭 갖추어야 할 사람들을 대상으로 측정하는 것은 이러한 과제와 가장 현실적으로 관련되는 문제들이다.

이번에 밝혀진 조사결과는 서울대학교가 세계적인 학문수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 폭넓게 반영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의견수렴과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는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고 미진한 점과 간과된 점들은 그때그때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 보고서의 제출은 보다 본격적인 의견수렴의 새로운 출발이며, 그 논의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한곤 외 (1982), '大學院 學位論文 提出 資格考査 外國語科目 試驗 改善方案 硏究',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김한곤 외 (1983), '大學院에 있어서의 外國語科目 試驗의 標準化 方案에 관한 硏究',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Quirk, Randolph, Sidney Greenbaum, Geoffrey Leech, and Jan Svartvik (1988),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and New York: Longman.

〔부 록〕

외국어 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에 부응하여 대학원 외국어 고사제도를 장기적 안목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절실해졌습니다. 이에 어학연구소에서는 현행 대학원 입학시험 및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제도에 의해 치러지고 있는 외국어 시험의 타당성과 외국어 과목의 적합성을 점검하고, 만일 문제가 있다면 외국어 고사제도의 새로운 개선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외국어과목 시험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 설문은 바로 이러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오니, 바쁘신 중에도 조금의 여유를 내셔서 본 설문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해 주신 자료는 순수한 학술적 연구에만 사용될 것이며 익명으로 통계처리됩니다. 빠짐없이 모든 항목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PART I

1. 전공학과 :
2. 선생님께서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외국어가 있습니까?
   예_____ 아니오_____
3. 만약 있다면, 어떤 어국어(들)입니까?(해당 외국어에 전부 표시해 주십시오.)
   1) 영어 2) 독일어 3) 불어 4) 기타( )
4. 작년 한 해 동안 외국어로 쓰여진 전문적인 글들을 몇 편이나 읽으셨습니까?
   1) 없다 2) 1~5편 3) 6~10편 4) 10편이상
5. 만약 읽으셨다면, 어떤 외국어들로 읽으셨습니까?(해당 외국어에 전부 표시해 주십시오.)
   1) 영어 2) 독일어 3) 불어 4) 기타( )
6. 작년 한 해 동안, 외국어를 사용하여 전문적인 글들을 몇 편 정도 쓰셨습니까?
   1) 없다 2) 1~5편 3) 6~10편 4) 10편 이상
7. 만약 쓰셨다면, 어떤 외국어로 쓰셨습니까?(해당 외국어에 전부 표시해 주십시오.)
   1) 영어 2) 독일어 3) 불어 4) 기타( )

8. 작년 한 해 동안, 외국의 동료 선생님들에게 외국어로써 몇 통의 전문적인 편지를 쓰셨습니까?
   1) 없다　　2) 1~5통　　3) 6~10통　　4) 10통 이상
9. 만약 전문적인 편지를 쓰셨다면, 어떤 외국어로 쓰셨습니까?(해당 외국어에 전부 표시해 주십시오.)
   1) 영어　　2) 독일어　　3) 불어　　4) 기타(　　)
10. 작년 한 해 동안, 외국어로 진행하는 강연에 몇 번이나 참석하셨습니까?
   1) 없다　　2) 1~5회　　3) 6~10회　　4) 10회 이상
11. 선생님 자신 혹은 동료 선생님들이 외국어가 유창하지 못한 이유로 학교 일선 업무나 연구에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_____　　아니오_____
12. 선생님의 제자들이 취업할 때 가장 필요로 하는 외국어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영어　　2) 독일어　　3) 불어　　4) 기타(　　)
13. 선생님의 제자들이 취업을 하고 난 후에 가장 필요로 하는 외국어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영어　　2) 독일어　　3) 불어　　4) 기타(　　)

PART II

1. 대학원 입학고사 및 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에 외국어시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_____　　아니오_____
2. 만일 필요하다면, 제 1 외국어로 반드시 영어를 채택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_____　　아니오_____
3. 만일 아니라면, 학과의 특성에 따라 제 1 외국어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_____　　아니오_____
4. 그렇다면, 어떤 외국어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영어　　2) 독일어　　3) 불어　　4) 기타(　　)
5. 전공과목연구에 필요한 외국어가 몇 개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없다　　2) 1개　　3) 2개　　4) 3개 언어 이상
6. 필요하다면, 전공과목연구에 어떤 외국어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외국어에 전부 표시해 주십시오)

1) 영어 2) 독일어 3) 불어 4) 중국어
5) 서반아어 6) 러시아어 7) 기타( )

7. 현행 외국어시험 시행방식에 따르면 석·박사과정에서 각각 2회(입학시험 1회, 자격시험 1회)의 외국어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이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_____ 아니오_____

8. 아니라면, 몇 회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0회 2) 1회 3) 2회 4) 3회 5) 기타(회)

9. 현행 외국어 시험은 3월과 9월에 실시되고 있는데, 이 시기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_____ 아니오_____

10. 아니라면, 어느 시기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방학중 2) 학기중 다른 시기
3) 응시자가 원하는 시기 4) 기타( )

11. 현행 외국어(영어) 시험의 문제형식에 만족하십니까?
예_____ 아니오_____

12. 아니라면, 어떤 형식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1) 주관식 단답형 2) 주관식 장문독해
3) 객관식과 주관식 혼합형 4) 각 과에서 필요로하는 형식
5) 기타( )

13. 현행 제2외국어 시험은 주관식 독해시험으로 시행되는데, 이에 만족하십니까?
예_____ 아니오_____

14. 아니라면, 어떤 형식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주관식과 객관식 혼합형 2) 객관식 4지선다형
3) 주관식 단답형 4) 각 과에서 필요로하는 형식
5) 기타( )

15. 대학원 입학고사 및 학위논문 제출자격 외국어시험에 전공외국어(전공과목에 관계된 외국어)와 교양외국어를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_____ 아니오_____

16. 도움말씀:

☆ 수고하셨습니다 ☆